

책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자를 깊이 읽는다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서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번에는 책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해야겠다. 호색한처럼 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 읽는 것이 지겨워질 것이다. 책이 무의식적 욕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돈 조반니나 카사노바 같이 사랑에 빠질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호색한이란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사랑을 하는 법에 있어서 너무 다르다.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색한처럼 책을 읽더라도 카사노바처럼 읽어야지 돈 조반니처럼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에 빠져야지 쾌감에 빠지면 안 된다.

글_변학수

반드시 한 책을 다 읽고 나서 다른 책을

카사노바는 원래 독서 애호가이기도 하였지만 여성을 대할 때 책을 읽듯이 그 여성을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 책을 다 읽고 나서 다른 책을 읽듯이 한 여성을 다 읽고 닳을 때 다른 여성을 읽었다. 이 점에서 카사노바와 돈 조반니는 다르다. 카사노바에게는 레포렐로와 같이 필 여자의 명단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보다는 한 여자에게 목숨을 걸고 그 여자로 인해 성직자(그는 원래 신부였다)라는 직업을 버리고, 실연을 잊으려고 박사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여자에게 몰입하였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카사노바가 사랑을 할 때마다 언제나 쾌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반복되는 쾌감이 아니라 사랑에는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있었다. 우리가 새로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면 다른 책은 덮어야 한다. 두 책 사이에는 반드시 단절이 있게 마련이고 망각이 있게 마련이다. 이 단절과 망각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앞의 것을 덮지 않고는 뒤의 것에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대부분의 시인들이 독서를 끝없는 간음 행위에 비유했던 것이다. 그러니 독서가의 눈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란 없다. 모든 책은 읽는 순간에 최고의 책일 뿐이다. 이것은 치유의 관점에서조차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불건강하다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서라도 끊임없는 혼돈스런 영혼의 흔적에 호기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지각하는 것 자체가 곧 치유이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너희들에게 말하거니와, 춤추는 별을 탄생 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들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백여 년 전에 예견했던 대로 “머지않아 사람이 더 이상 별을 탄생시킬 수 없게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독서에 호기심과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시대를 말하기도 한다. 그저 돈 조반니처럼 읽어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 쾌감만 반복할 뿐 차라투스트라의 별을 춤추게 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느낌은 약이다. 배를 만져주는 할머니의 손, 안아주는 엄마의 가슴, 업어주는 아버지의 등, 내 손을 잡아주는 누나와 오빠의 손, 이 모든 몸의 느낌은 바로 상처 입은 독서자들에게 미치는 치유의 지각을 제공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눈길, 그들의 냄새,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보살피주는 손길은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준다. 같은 맥락에서 프리츠 펄스는 “지각하는 것 자체가(awareness per se) 곧 치유다”라는 말을 했다.

외부적인 자극과 내면이 만나는 것이 소외와 고립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이유는 그런 지각 속에서 미감(aisthesis)이 발현하고 그 미감은 곧 기억과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순간 내적 반향(emotional resonance)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금 읽는 구절은 나의 자아(ego)와 내 속에 있는 자기(self)에 의해 지각되는 것을 환기하고 지각(awareness)으로, 의식(consciousness)으로 옮겨 나로 하여금 내적인 행복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런 전형적인 구절을 소개하겠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한 장면이다.

벌써 세 시간도 전의 일로, 시마무라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바라보며,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군, 좀더 선명하게 떠올리려고 조바심치면 칠수록 붙잡을 길 없이 희미해지는 불확실한 기억 속에서 이 손가락만은 여자의 감촉으로 젖은 채, 자신을 먼데 있는 여자에게로 끌어당기는 것 같군,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선을 긋자, 거기에 여자

의 한쪽 눈이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마음을 먼데 두고 있었던 탓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건너편 좌석의 여자가 비쳤던 것뿐이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 민음사, 2004, 10쪽)

책은 쾌감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사랑으로 읽어야

이 글에서 서술되는 여자는 요코(葉子)인데 소설 첫 부분에서 서술하는 시마무라의 눈에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답게, 차분한 듯 편안하게, 때로는 진지한 듯 서늘하게 다가온다. 그녀에 대한 관찰과 묘사는 아마 시마무라의 기억에서 연유된 것일 수도, 또 그것이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요코는 요코라는 여자일 뿐이되, 요코라는 여자가 시마무라에게 불러일으키는 기억과 창에 어린 그녀의 모습이 시마무라의 어렴풋한 지각과 아름다움, 내적 반향을 통해 탁월하게 묘사되고 있어, 읽는 우리 또한 마치 훑쳐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책을 사랑하게 된다. 아니 책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자를 깊이 읽는다. 그것은 아마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나, 그 남자를 찌었나, 결혼했나, 하는 쾌감과는 너무 다른 일이라. 요코를 포함해서 어떤 여자도, 시마무라를 포함해서 어떤 남자도 반복된 성적 쾌감일 수 없듯이 책은 쾌감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사랑이다. 그 호기심은 기차의 창에 비친 ‘치녀’로서,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따뜻한 ‘누나’로서,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엄마’로서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책은 호기심을 담은 사랑으로 읽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이나 의 여자인 것처럼, 나의 남자인 것처럼. 그럴 때 마음이 치유된다. **한문**

변학수 님은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등이 있다.